

미국 장로교 예배 모범

개정 초안

서문

이 예배 모범은 신앙과 삶과 교회의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예배 신학은 미국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대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에큐메니칼 관계들에 귀를 기울인다. 예배 모범은 풍부한 전통 유산과 다양한 문화들을 반영하고 권장한다.

예배 모범은 고정된 예배 순서들과 기도 모음집을 지닌 예식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되고, 적절한 예배 형태의 윤곽을 제공해 주며,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중언, 섬김 사이의 관계들을 강조하는 신학을 기술해 준다.

예배 모범은 개체 교회들과 미국 장로교 공의회들 안에서 예배를 위한 표준과 모범을 제시해 준다. 우리 예배의 지침을 제시하는 헌법상의 문서인 예배 모범은 본 교단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 예배 모범은 여러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발전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권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성경 참조 구절들, 신앙고백서, 그리고 규례서의 다른 항목들은 가로 안에 기록해 놓았으며, 다른 성경적이고 신앙고백적인 자료들은 각주를 달아 표시할 것이다.

제 1 장: 크리스천 예배 신학

W-1.01: 크리스천 예배: 서론

W-1.0101: 하나님께 영광

크리스천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함께 모여,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면서 행하시는 똑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는 삶으로 파송을 받는다.

W.1.0102: 은혜와 감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감사로 반응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러한 리듬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일상의 사건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으며,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삶과 예배 모두를 형성해 준다.

W-1.0103: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은 오고 가는 세대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다윗의 집안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다.

W-1.0104: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 시에 말씀하셨고, 성서에 약속되고 계시되어졌으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모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하고 분명한 계시를 발견한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지를 발견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예배하며,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W-1.0105: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나타내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창조시에 어떻게 운행하셨고, 세례시에 그리스도께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오순절에서 어떻게 교회에 강림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 성령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일상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모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무장시키시며, 성례전을 통해 우리를 취하시고 (세례를 통해) 육성하시며 (성만찬을 통해), 섬김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은사들을 베푸신다.

W-1.0106: 말씀과 성례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활동하신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마다, 세례와 성만찬이 거행되는 곳마다,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러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러한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며, 믿음의 신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W-1.02: 시간, 장소, 물질

W-1.0201: 창조와 구속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성령님에 의해 거룩케 된다. 예배를 통해—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두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

W-1.0202: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에라도 예배할 수 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매일의 예배에 대해 기록해 놓았지만, 또한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 성일로 구별해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주중 첫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한다. 사도들은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을 언급하면서 이 날을 주일 (the Lord's Day)이라 칭하였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거행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교회는 특별히 주중 첫 날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는데, 그것들 중 많은 방법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금식들로부터 변천되었다. 교회력의 기념일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탄생과, 공현(epiphany)과, 세례와, 변형과, 수난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를 기억한다. 세죽식 목요일, 성 금요일, 부활절 전야와 같은 다른 기념의 날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룩한 신비로 둘러 쌓여있다. 또한 재의 수요일, 오순절, 삼위일체 주일, 모든 성인의 날(All Saints Day)과 같은 기념의 날들은 교회의 삶과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 강림절, 성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가 교회력의 주요한 절기들을 준비하거나 축하하는 가운데 믿음과 제자도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매일 기도의 모형은 또한 교회를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수세기 동안 내려 온 기독교 전통과, 예수님 자신의 훈련에 연결시켜 준다. 큰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하든, 매일의 기도는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삶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준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시민과 농경 생활의 주기들, 문화 및 가족의 경축 행사,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들의 기념, 교회의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반영해주는 시간들을 갖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W-1.0203: 공간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구약 성경은 둘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장소들에 대해 묘사해 준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광야에서 언덕에서 호숫가에서 예배하기도 하셨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전과 회당과 가정과 지하동굴과 감옥에서 예배하였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그들 가운데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후에 교회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위한 공간에는 우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공간이 예배를 위해 구별되어질 때, 그곳은 경외감을 자아내고, 공동체를 고무시키며, 모든 사람들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위한 공간에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장소와, 세례반이나 세례못, 그리고 주의 만찬을 위한 성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배치할 때에는 그들 서로의 관계와, 그것들이 기독교 예배에서 차지하는 핵심 가치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예배를 위한 공간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 만나는 곳(threshold)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W-1.0204: 물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할 때에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 할 때에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 말해준다:

언약궤, 천과 용기들, 기름과 향료, 음악기구, 곡물, 과일, 동물. 동시에, 선지자들은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물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는 것.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실 때에 일반적인 물건들—그물과 물고기, 기름병과 기름, 수건과 대야, 물, 빵, 포도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에 대한 상징으로서 세개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들—물과 빵과 포도주—을 지니고 살았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례전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과,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반응의 표식이다.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취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육성하신다. 그에 반응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우리의 몸을 찬양의 산제물로 드린다.

예배에서 드리는 물질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돌보는 우리의 청지기직을 반영해 준다. 우리는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린다.

우리는 또한 예배시에 음악과, 예술과, 드라마와, 율동과, 미디어와, 깃발과, 제의 가운과, 용기들과, 비품들과, 건물들을 포함하는 창조적 예물들을 드린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들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킬 때, 그것들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것들은 단순한 형태와 기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위해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W-1.03: 언어와 상징들과 문화

W-1.0301: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말씀 (the Word)으로 존재케 하신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상징들과 문화적 형식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말하고 우리 마음으로 감사를 표시한다.

W-1.0302: 언어

하나님의 신비와 실체는 우리의 경험과 이해와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 세상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무엇 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영광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적 방식들로 표현한다: 창조자, 언약 창시자, 안위자, 해방자, 심판자, 구속자, 목자, 주권자, 운반자, 낳게 하는 자. 구약 성서는 또한 하나님을 “주”로 언급하는데, 이 단어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숨겨진 이름을 대신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전달해 준다. 구약 성서는 또한 자연으로부터 이미지들을 빌려와, 하나님을 바위로, 우물로, 불로, 빛으로, 독수리로, 암탉으로, 사자로 묘사한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바꾸셨는지를 보여준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는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러한 몇몇 단어들을 사용하셨다: 선한 목자, 신랑, 인자.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거나 바꾸어 사용하였다. 특별히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말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과 연결시킬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언급해주는 언어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사용하는 넓고 깊은 용어들과 이미지들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언어들은 성경의 중언과 일치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언급하는 언어는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와 배경과 경험들을 존중해 주면서 포괄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말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받고 믿음의 순전한 표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용 언어 혹은 모인 사람들의 언어라야 한다.

W-1.0303: 상징들

어떤 성경의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게 해주며, 영속적 의미를 부여해주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실례들이 있다: 나무, 성전, 무지개, 강, 양, 두루마리, 건물, 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구약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이러한 평범한 의미들을 끌어내었다. 빛, 책, 물, 뺨, 잔, 십자가와 같이 성경의 어떤 두드러진 상징들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한 것들은 승배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식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표현될 때 그 말씀을 더 충분히 알게 된다.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서의 상징적 행위들을 묘사해 준다: 금식과 잔치, 즐거워함과 슬퍼함, 춤과 노래, 회개의 의미로 재를 뿌림과 기름부음, 정결과 봉헌, 정의를 행함과 자비를 나타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기준의 신앙 관례들, 특별히 세례와 뺨을 떼는 일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으며, 일상적인 궁휼의 표현들—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밭을 씻기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들로 바꾸셨는지를 보여준다. 기독교 예배에는 이러한 관행들 및 다른 성경의 관행들—모임과 파송, 무릎 꿇기와 일어섬, 말과 노래, 정결과 봉헌, 회개의 의미로 재를 뿌림과 기름부음, 먹고 마심, 축복과 안수--과 강한 유대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전해주며, 감사가 담긴 우리의 반응을 전달해 준다.

W-1.0304: 문화

오순절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문화와 언어들로 구성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공동체였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들에는 등장하고 있는 교회—유대인의 것도 헬라인의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과 갈등들을 기록해 놓았다. 교회는 2 천년 동안 성장하여 퍼져나가는 동안, 온 세상의 문화와 영토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왔다.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해 왔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구속 받은 자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로 구성된 큰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본질상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이며, 특정한 개체 교회와 공동체라는 정황에서 일어난다. 진정한 예배는 그 교회 안팎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특정한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장 잘 전달하는 단어들과 이미지들과 상징들과 행위들을 선정한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이는 곳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에 동참한다. 따라서, 우리가 온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 장: 개혁 전통의 예배 순서

W-2.01: 순서의 출처와 원칙들

W-2.0101: 순서의 출처

개혁 교회 예배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신실해야 한다. 성경의 증언이 예배 순서를 정하기 위해 교회가 의존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권위적인 출처이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보편적 교회가 사용하는 더 광범위한 전통들과, 우리 개혁 전통의 지혜와, 예배 공동체의 문화와 정황, 그리고 미국 장로교 헌법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

W-2.0102: 형식과 자유

기독교 예배는 항상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해왔다. 어떤 전통들은 성경에 충실하려 애쓰면서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 어떤 전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고정된 형태의 예배를 거부해왔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예배가 잠정적인 것이기에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정된 형태의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관된 형태들과 관행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다소 융통성있는 예배 형태는 기대하지 않은 통찰과 영감을 위한 여지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귀중하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되고 성령님의 창조성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F-1.04)

W-2.02: 예배 모임

W-2.0201: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행하는 활동이며, 우리 공동의 삶과 사역의 표현이다.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온 지체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G-1.03)

예배 순서는 개체 교회와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 안에서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예배 순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를 장려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과 유쓰들은 예배 안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오며,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믿음이 성장한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W-2.0202: 기도로 참여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이며,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기본적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며, 성령님에 의해 능력이 부어진다. 신실한 기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다: 찬양, 감사, 고백, 간청, 중보, 헌신. 기도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기억함, 도움을 구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기도는 말로, 침묵으로, 노래로, 혹은 몸짓으로 드릴 수 있다.

시편과 찬송과 영적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행했던 매우 중요한 형태의 기도이다. 노래할 때 온 존재가 참여하게 되며, 공동체 예배에서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회중 자체가 교회의 주 성가대이다. 미리 준비하는 성가대와 다른 음악가들의 목적은 노래를 통한 기도를 할 때에 회중을 인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정한 노래들과 성가와 기악은 말씀을 해석하고 회중의 기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예배 시에 많은 요소들이 노래로 불려질 수 있다. 예배에서 음악은 단지 예술적 과시나 여흥이나 침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들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무릎 꿇기, 고개 숙이기, 일어서기, 손을 들기; 춤추기, 벌구르기, 손뼉치기, 포옹, 손 잡기; 기름 부음 및 암수.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배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 전체 회중의 필요들을 간파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W-2.03: 직제 사역과 예배의 리더십

W-2.0301: 섬김을 위한 은사들

어떤 성도들은 받은 은사들과 훈련을 통해 예배에서 특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름을 받아, 예배를 질서있게 인도하는데 있어 특정한 책임들을 진다. 이러한 특정한 역할들과 책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온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위축시키거나 그늘지게 해서는 안된다 (G-1.03, G-2.01).

W-2.0302: 집사들

집사는 증거하고, 궁휼을 베풀고, 섬기는 교회의 사역을 이끌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집사는 예배 순서에 특정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당회는 반드시 집사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섬기고 궁휼을 베풀고 증거하는 그들의 사역이 교회의 공적 예배들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주일 예배에서, 집사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대표 기도를 하며, 성찬 상을 준비하고, 예배를 마칠 때 위탁의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G-2.02)

W-2.0303: 사역 장로들

사역 장로들은 분별과 다스림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 생활을 육성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개체 교회 안에서, 그들은 교회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며, 성도들의 참여를 권고한다.

특별히, 사역 장로 (장로)들과 교역 장로 (목사)들은 당회에서 함께 섬길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정기적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공동 기도, 경배 찬양 (praise to God)을 준비함; 목사들 고유의 책임들을 제외한 개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함; 예배를 위한 적절한 시기 (occasions), 날, 시간, 장소를 정함; 예배 처소의 예비, 특정한 설비 (꽃, 초, 깃발, 제복 [parament] 및 기타 물건들)의 사용, 음악과 드라마와 춤과 시각 예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짐.

주일 예배에서, 장로들이 예배로의 부름을 인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대표 기도를 하며, 현금 위원으로 섬기고, 성만찬을 위해 섬기고 세례 시에 돋는 역할을 맡고, 예배 끝 무렵에 위탁의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사역 장로들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G-2.03, G-3.02)

W-2.0304: 교역 장로들 (목사)

목사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인도하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는다. 특별히, 목사는 다음과 같은 일들에 책임을 진다: 봉독할 성경 말씀의 선택, 예전과 설교의 준비, 회중이 함께 부를 노래 선택, 특정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드라마, 춤 및 다른 예술 형태의 사용.

주일 예배에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만찬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목사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끝날 무렵에 축도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G-2.05)

W-2.0305: 공동 책임

어떤 특정 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인쇄물이나 미디어 사용을 포함하는 예배 순서는 당회의 동의 하에 목사가 책임진다. 찬송가, 예배 지침서, 성경 및 다른 영구적 예배 자료들은 목사의 동의 하에, 그리고 교회 음악가들 및 교육자들과 협의 하에 당회가 책임을 진다. (G-2.05, G-3.02)

목사는 특별 예배를 계획할 때 예배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음악 리더나 성가대장이 있다면, 목사는 성가곡과 다른 음악들을 위해 그 사람과 협의할 수 있다. 당회는 이러한 협의가 적절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되어지도록 배려할 것이다. (G-2.05)

당회는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예배에 관해 그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또한 예배 모범서를 정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특별히 사역 장로들과 집사들의 훈련시에--기회들을 마련해야 한다. (G-3.02)

당회는 예배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 노회에 책임져야 한다. 각 노회들은 개체 교회들의 예배가 지니는 특징과, 그 예배를 지도하는 표준들,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서 맷는 열매들에 대해 당회들과 토론해야 한다. 노회는 개체 교회들과, 목사 후보생들의 준비와, 목사들의 계속 교육을 위한 교육 행사들에서 예배 모범을 사용하여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 (G-3.03)

제 3 장: 주일 예배 순서

W-3.01: 주일 예배

W-3.0101: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 중 첫 날 이른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서의 증언 때문에 주의 날(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 주의 날은 또한 창조의 “여덟 째 날”이라 불리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 창조의 표시이다. 우리가 어느 날이든지 그리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매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W-3.0102: 말씀과 성례전

주일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이다. 우리는 주 중 첫 날—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 모여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떡을 함께 나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주의 날에 말씀과 성례전으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한다.

주일 예배 시에는 또한 다른 활동들도 한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축복하고 파송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파송을 받는다.

W-3.0103: 예배 순서

예배 순서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의미있고 일관된 구조를 제공해 준다. 예배 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믿음과 신실함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주일 예배를 위해 여기에 제시된 예배 순서는 성경과, 보편적 교회 전통과, 우리 개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예배 순서는 교회의 신앙과 삶과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이 중심을 이루도록 했다. 어떤 특정한 교회나 문화에 적합한 다른 예배 순서들이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순서들은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성령님께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짜여져야 한다.

W-3.02: 모임

W-3.0201: 예배 준비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광고를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행위는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니는 정체성과 선교를 증언해 준다.

W-3.0202: 예배를 여는 말

보통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예배로의 부름은 이 장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표현해 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당회는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공동체 육성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예배로의 부름을 인도하는 것이 특별히 바람직하다.

W-3.0203: 시편, 찬송가, 및 영적인 노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시편을 노래로 불러왔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빛 하에서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왔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개혁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교회는 시편에 다른 찬송들과, 송영들과, 영적 노래들을 더하기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교회는 다양한 악기들에 의해 동반되는 다른 형태의 많은 회중 찬송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주일 예배시에 이러한 풍부한 자원들로부터 곡을 선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린다.

W-3.0204: 개회 기도

개회 기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모인 회중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구할 수 있다. 혹은, 그 날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통해 이어지는 예배의 주요 주제들과 성경의 이미지들을 소개할 수도 있다.

W-3.0205: 고백과 용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과 우리의 죄된 상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 주일 예배에서 강조되는 찬양에서 고백으로의 전환은 개혁 전통의 현저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고백의 시간은 회개와 약속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표현해 준다. 우리는 죄와 포로상태와 개인 및 공동체의 삶에 존재하는 깨어짐의 실체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고백의 기도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송이 포함될 수 있다.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확신을 제공해 준다. 세례반에서 이 순서를 인도하면 우리의 고백을 세례의 은혜와 죄씻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로의 초청과 연결해 준다. 말씀과 성례전과의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특별히 목사가 고백과 죄사함의 시간을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활동들이 따라올 수 있다. 즉,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혹은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찬양을 부르거나, 율법을 요약하거나 신실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해의 표시로서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다.

W-3.03: 말씀

W-3.0301: 말씀 선포의 신학

성경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 1:1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언한다.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임재하신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며 주일 예배의 필수 요소이다.

목사는 공적 예배에서 읽을 성경 말씀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선정된 본문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에 걸쳐 성서 전체 메시지를 반영해 주는 말씀들이어야 한다. 본문을 선정할 때에는 교회력의 절기들과 축일들, 세상의 사건들, 자기 교회에 대한 목회적 관심사들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된 공동 성구집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성경 본문을 선정하여 읽는 계획표들은 보편 교회와의 일치와 연결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성경 본문들을 읽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목사는 또한 공적

예배에서 사용할 성경 번역본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성경은 예배 공동체의 공용어(들)로 읽혀져야 한다. 회중들에게는 편집된 것이나, 의역된 것이나, 새롭게 번역된 것들 중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선포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지런함과 분별력이 요구되고, 매일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복음서 메시지들을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하고, 회중들의 삶의 정황에 민감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설교는 복음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노래와 드라마와 춤과 시각 예술과 같은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형태의 선포는 복음이 충실히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G-2.03, G-3.02).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다양한 방식들로 반응한다: 교회의 신앙 고백, 세례식이나 세례의 재확인,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말씀의 선포는 불완전한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성령님의 은사들에 달려 있다.

W-3.0302: 조명을 위한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다. 성령님의 조명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의존감은 개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표시이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성경 봉독과 선포에 앞서며,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봉독에 적용된다.

W-3.0303: 성경

회중 앞에서의 성경 봉독은 본문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회는 성경 봉독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이에 적어 와서 혹은 인쇄물을 통해 읽는 대신에, 교회 강대상에 비치된 성경을 통해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영속성과 무게감을 전달해 주며, 성경 이야기의 공통적 특성을 실증해 준다.

어린이들과 유쓰를 포함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초청될 수 있다. 집사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에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역 장로들은 말씀의 선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회중의 역할은 읽혀지고 선포된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를 다하여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을 위해서는 기대감과 집중과 상상력이 요구된다. 말씀이 제시될 때, 회중들은 또한 봉독자와 함께 읽거나, 응답 혹은 답창식으로, 또는 인쇄나 영상 자료들을 보며 참여할 수 있다. 읽혀진 말씀에 언어적 반응을 함으로서 성경 봉독이 종결된다.

W-3.0304: 음악을 통한 반응

말씀을 봉독한 후에는 시편, 찬송 (canticles), 성가, 알렐루야, 찬양 (songs of praise), 혹은 다른 음악적 반응이 따라올 수 있다. 개정 공동 성구집에 나오는 매일의 시편은 성도들에게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첫 성경 봉독 (구약 성경, 혹은 부활절에는 사도 행전) 후에 노래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W-3.0305: 설교

봉독한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의 선물과 부르심을 제시한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더 충성스럽게 따르도록 무장되며,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설교는 기도나, 송영 (ascension), 혹은 제자직의 초청으로 끝맺을 수 있다. 보통,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교역 장로 (목사)가 설교를 한다.

W-3.0306: 신앙의 확인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 이 신앙의 확인은 성경이나 신조 (Creeds)나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의 교리문답들에 나오는 문장들에 기초한다. 회중 찬양, 성가, 혹은 다른 음악적 반응으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간증을 위한 기회들이 또한 이 시간에 주어질 수 있다. 세례나 세례의 재확인과 같은 순서가 있을 때에는 세례 예전의 한 부분으로 사도 신경을 한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신조는 성만찬 시에 특별히 바람직하다.

W-3.0307: 세례와 세례 후의 제자직

세례의 성례전 (W-3.0402-W.0408) 및 세례 언약과 관련된 다른 예식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거행한다. 이러한 예식들에는 믿음의 고백에 기초한 세례의 재확인 (W-4.0203), 새 성도들의 영접 (W-4.0204), 섬김을 위한 파송 (W-4.03), 직제 사역을 위한 암수와 위임 (W-4.04), 삶이나 사역의 전환 (W-4.05), 공동 행사들의 축하, 크리스천 결혼 (W-4.06), 부활의 증거 (W-4.07)가 포함된다. 이 때에 또한 예배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라고 말하거나, 혹은 세례 시에 했던 약속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제자직으로의 초청을 할 수 있다.

W-3.0308: 회중 기도 (중보기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및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령의 신음에 동참한다. 이 기도는 한 리더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온 회중이 함께 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온 교회가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중보 기도와 간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해 한다: 보편적 교회 및 지역 교회의 선교와 사역; 피조물의 돌봄 및 자원들의 올바른 사용; 세상의 평화와 정의; 열방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난하고 깊주리고, 억압 받는자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긍휼 사역과 화해; 몸이나 정신이나 영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온전함; 다른 특별한 필요들. 이러한 기도들은 상만찬 상에서 혹은 회중 가운데에서 드려질 수 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음악적 반응들이나 상징적 행위들을 곁들일 수 있다.

집사들이 궁휼 사역에 책임이 있고, 장로들이 회중 양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W-3.04: 성례전

W-3.0401: 성례전의 신학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 속에서 제정되고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성례전은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인간들의 행위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랑과 섬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례전은 교회의 공동 예배라는 정황 속에서 행하는 물리적 표시이면서 동시에 영적 선물이고, 말씀과 행위가 포함되며, 기도가 올려진다. 성례전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들—물, 빵, 포도주--이 사용된다. 개혁 전통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이 성서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우주적 교회의 역사 내내 존속되어졌음을 인정한다.

W-3.0402: 세례 신학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다는 표시이며 봉인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며, 사역을 위한 기름부음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생명수의 선물을 제공하셨다. 고통과 죽음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들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능력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다.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세례의 선물을 통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된다” (롬 6:11).

세례의 성례전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용서와 죄씻음과 갠신,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짐,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혁 전통은 세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이해한다. 세례의 물은 창조와, 홍수와, 출애굽의 물로부터 흐른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죄씻음의 능력에, 세대에 걸친 구속의 약속에 연결시켜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와 같이, 세례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은혜로운 언약의 표시이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온전케 된다. 세례는 정의가 공의가 세차게 흘러 내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며, 또한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나타내준다.

세례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정하고 봉인한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세례는 우리를 회개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제자화로 초청한다. 세례는 교회에 정체성을 주고,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파송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 사이에 하나가 되며, 모든 시간과 공간의 교회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지위와 성별의 장벽이 무너진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도모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포함된다. 믿는 자들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우리 자녀들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도 전에 사랑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이러한 두 형태의 증거는 하나이며 같은 성례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따라서 세례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세례의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할 때가 많다. 신양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람의 세례에 참여할 때, 교회에 등록하거나 떠날 때, 안수나 위임이나 파송을 받을 때, 성만찬 때마다 그렇게 한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믿음의 성장과 결단을 요구한다.

세례는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주일에 거행되어야 한다. 언약 공동체의 참여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 연합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증거해 준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공적 예배 시간 외에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경우에는, 당회원들 중 한 명이나 그 이상이 온 회중을 대표해 참여해야 한다.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세례도 하나이다. 미국 장로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들이 베푼 모든 물세례를 인정한다.

W-3.0403: 세례를 위한 책임

세례는 당회의 감독을 받아 목사나, 목회적 섬김을 위해 위임 받은 장로에 의해 베풀어져야 한다. 세례를 위한 당회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녀들이 너무 조급히 혹은 너무 늦지 않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을 격려하기; 새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세례 후보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을 심사하기; 그들에게 성례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세례 받은 자들을 교인 명부에 기재하기; 그들의 지속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한 돌봄. 전체 교회를 대신하여, 전체 회중은 세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어떤 특정한 교인들을 세례 받은 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을 위한 대부모나 멘토들로 지정할 수 있다. (G-2.05, G-2.10, G-3.02)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적어도 한쪽 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개체 교회--보통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의 활동 교인일 것이다. 당회는 부모나 보호자가 다른 교회의 활동 교인으면서 그들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승인하는 당회는 다른 교회의 공의회와 협의하며, 성례전이 베풀어졌을 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을 세례 성례전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교회의 활동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것이다. (G-1.04)

공의회는 목사가 교회가 아닌 특정 환경들, 즉 병원, 감옥, 학교, 군부대, 새로운 위십 커뮤니티에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인가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새로 세례 받은 사람이 교인 명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G-3.02, G-3.03)

W-3.0404: 소개

설교 후에,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세례의 성례전을 소개한다. 사역 장로들, 교인들, 혹은 에큐메니칼 중인들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봉독할 수 있다. 당회를 대신하여, 사역 장로가 세례 후보자들을 소개한다. 자기 자녀들이나 혹은 자신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는 의향을 표현한다. 부모들이나 보호자들, 대부모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세례 받는 자들을 지지하고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세례 시에 홀로 세례 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 격려를 받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에워싼다.

W-3.0405: 믿음의 고백

세례를 위한 후보자들 혹은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악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믿음을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밝힌다. 그들은 초대 교회가 세례를 확증할 때에 사용했던 사도 신경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

W-3.0406: 세례 베풀기 전의 감사 기도

세례 장소에서, 목사가 기도를 인도한다: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화해의 행위들을 찬양한다; 성령님께서 세례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재생을 주시고, 교회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를 요청한다.

W-3.0407: 세례 베풀기

목사는 물을 충분히 사용하여 세례 받는 각 사람의 기독교 이름 혹은 성을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마 28:19)라고 말한다. 세례를 위한 물은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세례 받는 이에게 물을 봇거나 혹은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다.

안수 및 기름 부음과 같이 성령의 선물을 암시하는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물로 세례를 주는 중심적 행위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W-3.0408: 환영

새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초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냄)나 세례 의복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음을 나타냄)과 같은 적절한 선물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눈다.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것도 적절하다. 막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을 수 있다.

W-3.0404: 주의 만찬에 대한 신학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인쳐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 일상적인 식사, 기적적 만찬, 이스라엘의 언약적 기념의 시간에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과 참 포도 나무—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만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고, 그것들을 새 언약의 표징인 그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떡을 폐시면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열심히 교제와 기도와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바울이 기록했듯이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이 뺑과 잔을 나누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고전 11:26).

주의 만찬의 성례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성령님을 초청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식사. 개혁 전통은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한다. 주의 만찬에서 뺑은 유월절의 뺑 및 광야에서의 만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해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스라엘의 감사의 표시로서 희생제물을 드림과 같이,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이며, 감사의 표시이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주의 만찬은 또한 우리가 채움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라는 우리의 소명을 나타내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죽음을 삼킬 그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 준다.

주의 만찬은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제정하고 인봉한다: 모든 백성들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의로움과, 성실함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준다. 주의 만찬은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일 때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교회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충성스러운 자들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했던 서약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재현신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는 가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자격없는 자들이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올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다. 성만찬 상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연령이나 이해여부와 상관없이 뺑과 잔을 받는다. 앞으로 나오는 자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세례 준비 및 세례로의 초대를 은혜롭게 해야 한다.

예배자들은 그리스도께 신뢰를 둘으로, 죄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및 서로와의 화해를 추구함으로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심지어 의심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은 주일 예배의 정기적인 순서로서 말씀 선포 후에 온 성도가 모인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지역 교회의 특성상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회는 다른 스케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일년에 네 번은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한다.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1주일 전에 주의 만찬을 행할 날을 미리 광고함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3.0410: 주의 만찬에 대한 책임

주의 만찬은 당회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나 목회적 섬김을 위해 위임 받은 사역 장로가 이 예식을 집례해야 한다. 당회는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경우들—기독교 혼인 예식, 안수 및 위임, 전인적 건강을 위한 예배, 아픈 자의 회복을 위한 예배,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장례 예배)를 포함—에도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경우들에는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한다. 그러한

예배들에 단지 몇 명의 성도들만 참석한다 할지라도, 주의 만찬은 사적인 예식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G-2.05, G-2.10, G-3.02).

공의회는 회중 모임이 아닌 특정한 상황들, 예를 들면 병원, 감옥, 학교, 군 기지, 교회를 개척하는 모임들에서 주의 만찬이 거행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W-3.0411: 헌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값비싼 선물을 대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자유케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은사들과, 물질들을 바침으로 감사를 표시한다. 모든 예배에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반응하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들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직을 표현해 주며, 서로에 대한 우리의 돌봄을 실증해 보이고, 교회의 사역을 후원해 주며,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을 채워준다.

십일조와 헌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 또한 이 때에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이것과 함께 주의 만찬을 위한 식탁이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헌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말로 혹은 노래로—와 함께 봉헌된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 자원들에 대한 청지기직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의 리더십을 맡고 있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아직 갖지 않았다면, 이때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W-3.0412: 큰 감사

헌물을 드리고 주의 만찬을 준비한 후에,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주의 만찬으로 초청할 수 있다. 성만찬 상에서, 목사는 회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삼중의 기도로 인도한다: 그날의 특별한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섭리적 돌보심과 언약에 신실하신 것에 대해 감사함; 예수님께서 성례전을 제정 (성만찬으로 초대할 때 혹은 떡을 떼면서 말하지 않았다면)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된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함; 예배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강건케 해주고, 성도의 교제와 보편적 교회 안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며,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 간구함.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끝맺는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아멘”과 같은 송영이 포함될 수 있다. 주기도문이 따라온다.

W-3.0413: 떡을 뺏기

목사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고 잔을 붓거나, 혹은 이미 채워진 잔을 들어 올린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경 구절을 동반할 수 있지만, 또한 침묵으로 행할 수도 있다. 한 떡과 한 잔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과 성례전의 공동체적 특성을 나타내 준다. 주의 만찬을 위한 떡은 성도들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 떡을 준비하는 자들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자들에 대비해야 한다. 당회는 포도 열매의 어떤 형태를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이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W-3.0414: 성찬식

떡과 잔은 성만찬을 행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받게 한다. 예배자들은 성만찬 상 둘레에 모여서, 앞으로 나와서, 혹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 떡을 떼어 성도들의 손에 놓거나, 혹은 분배를 위해 준비된 떡 조각을 분배할 수 있다. 성도들은 한 잔으로 마시거나, 개인 잔을 받거나, 받은 떡을 잔에 적설 수 있다. 보통 장로들과 집사들과 목사들이 떡과 잔을 분배해 준다; 당회는 이 외의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떡과 잔을 나누는 동안, 예배자들은 찬양을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다; 혹은 성도들이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성도들이 떡과 잔을 받은 후에 남은 것들은 주의 만찬상에 옮겨 놓는다. 그 다음에 목사가 성례전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예배가 끝난 직후에, 두 명 이상의 직제 사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집에 머물고 있는 자들, 혹은 입원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연장된 성찬 예식을 수행하는 자들은 당회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신학적, 목회적, 예전적 은사들과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떡과 잔은 성만찬 상에서 옮겨져서, 성례전에 대한 개혁 전통의 이해와 선한 청지기직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고, 당회가 승인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

W-3.0415: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의 만찬은 주일 예배, 즉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교회의 상황들과 당회의 결정에 의해 주의 만찬이 주일 예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헌물과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와, 감사와 헌신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어진다.

W-3.05: 파송

W-3.0501: 서약의 표현들

성례전에서 받은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는 서약의 표현들을 통해 우리를 제자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확증한다. 그러한 서약의 행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폐회 송, 시편 송,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신령한 노래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유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하는 창조적 혹은 상징적 행위들; 세례 받을 준비 혹은 세례를 받겠다는 의도를 선포하거나 세례 언약을 재확인; 복음 전파와 긍휼과 정의와 화해의 사역을 위한 파송; 떠나는 성도들에게 작별;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간단한 초대나 광고.

W-3.0502: 축복과 권면

주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제사장의 축복이나 사도적 축도와 같이--로 끝맺는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표현이며 또한 말씀과 성례전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보통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을 받는다. 권면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대행자들로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집사들이 교회의 중인과 섬김의 사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장로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신실히 감당하는 것에 대한 감독권을 지니고 있기에, 집사나 장로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W-3.0503: 세상에서의 섬김

기독교 예배와 섬김은 주일 예배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아간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 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제 4 장: 목회 및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의식

W-4.01: 목회 및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의식

W-4.0101: 세례로부터 시작됨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의 표시와 봉인으로서의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서약의 토대이다. 목회 및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의식들은 모두 세례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례에 대한 약속들로부터 흘러 나온다. 그러한 특별한 목적들은 주일 예배시에 말씀의 선포에 이어서 적절히 축하되거나, 다른 공적 예배들에서 축하될 수 있다. 그러한 예식들은 세례반이나 세례탕에서 적절히 집례될 수 있다.

W-4.02: 세례 언약의 재확인

W-4.0201: 세례 받은 자들의 양육

세례 시에, 각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아 들여지며,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며, 주의 만찬에 환영을 받고, 섬김의 삶을 위해 구별된다. 세례 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제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전체 교회의 책임이다. 특별히 이러한 양육의 책임은 당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 유아 때 혹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면, 당회는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누군가 청소년 혹은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면, 당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W-4.0202: 주의 만찬으로의 초대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주의 만찬을 받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당회는 공적 예배에서 그들을 주의 만찬으로 환영하는 특별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을 주의 만찬으로 초대할 때에는 그들에게 성례전의 의미와 신비에 대해 한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야 한다.

W-4.0203: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의 책임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면 (때로 “견진례”라 불림), 당회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고, 당회에 의해 심리를 받고, 활동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적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이때, 그들은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을

확인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함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생활과 치리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세례의 서약을 재확인한다. 그러한 경우들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1.04, G-3.02).

W-4.0204: 새로운 성도들

교회는 이명 증서나 믿음의 재확인을 통해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 들인다. 당회가 그들을 심사하여 받아 들인 후, 새로운 성도들은 예배 시에 환영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세례시에 했던 서약을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의 예배와 생활과 치리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경우들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합당하다.

W-4.0205: 갱신과 새로운 결단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는 각성이나 갱신 혹은 결단을 위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세례 언약의 재확인을 통해 적절히 축하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과 성령의 감동을 당회에서 나누도록 격려를 받음으로, 공적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과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4.03: 섬김을 위한 파송

W-4.0301: 크리스천 섬김의 행위들

각 그리스도인은 세례시에 제자직으로 부름을 받으며, 세상을 섬기도록 파송을 받는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불러 교회와 세상에서 특정한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신다: 교회 안에서는 교사나 이사(trustee)나 음악가나 위원회 회원들로; 교회를 대신해서는 지역 사회를 위한 목회 사역을 통해;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교단 및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에서 섬기는 일로; 교회 밖에서는 궁휼과 정의와 화해를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로. 이러한 종류의 행위들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나 파송의 행위로서 주일 예배시에 적절히 확증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다른 형태의 예배에서 인정될 수도 있다.

W-4.04: 안수, 위임, 파송

W-4.0401: 사역으로 부름 받음

각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사역으로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교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섬기게 하신다. 안수식에서, 교회는 교회의 초청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 사람들을 기도와 안수를 통해 구별하여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 섬기게 한다. 위임식에서, 교회는 전에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 안수 받았으며, 이제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새로이 부름 받은 사람들을 기도로 구별한다. 파송식에서, 교회는 교회 안의 다른 형태의 사역, 즉 목회적 섬김으로 부름 받은 장로,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 기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한다.

W-4.0402: 예식을 위한 설정

안수와 위임과 파송 예식은 주일 예배시에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거행될 수 있다. 안수와 위임과 파송 예식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사들과,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의

선포와 주의 만찬을 포함하는 특별 예배에서 거행될 수도 있다. 목사의 안수와/혹은 위임식은 노회에서 상당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간을 잡아 거행해야 한다.

W-4.0403: 예배 순서

안수나 위임 혹은 파송 예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그분을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설교 후에, 목사는 안수나 위임이나 파송을 받는 사람들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말한다. 안수나 위임이나 파송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 반 앞에 모인다. 적절한 공의회(집사와 장로와 교육사와 다른 유격자들을 위해서는 당회; 목사와 목회적 섬김으로 부름 받은 장로를 위해서는 노회)의 의장이 규례서에 나와있는 형식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헌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장로 한 사람이 교회에게 상응하는 질문을 한다. 모든 질문들이 긍정적으로 답해졌을 때, 안수 받을 사람들은 안수와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노회 전권 위원회가 목사의 안수식에서 손을 얹는다; 전권 위원회 의장이 다른 목사들과 장로들이 함께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전에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위임 기도를 받기 위해 가능하다면 성도들과 함께 일어설 것이다. 이 일 후에, 의장은 안수나 위임이나 파송에 대한 선포를 할 것이다. 당회나 노회 회원들이 새로이 안수를 받거나 위임을 받거나 파송 받은 사람들을 환영한다. 목사의 위임식의 경우에는, 목사와 교회에게 사역과 상호간 관계에 충실할 것을 위탁하는 말씀을 해 줄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 목사가 안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을 때는, 그 예식에서 거행되는 주의 만찬을 그 목사에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목사는 또한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할 것이다. 장로나 집사가 안수나 위임을 받을 때는, 그들 중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위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4.05: 전환기 인식

W-4.0501: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세례 시에, 각 그리스도인들은 전환기, 절기, 시련, 그리고 축하의 계절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지속적인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을 받는다.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을 위한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증거해 주며, 예배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감사나 지지 혹은 염려를 표현하도록 해준다.

W-4.0502: 떠나는 성도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들이 떠남으로 인한 부재감을 인식하고, 우리가 나눈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속적인 관계를 축하한다. 떠나는 성도들을 인정하는 순서는 주일 예배 정황 속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혹은 파송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예배에는 떠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W-4.0503: 사역의 종결

특정한 사람들--집사나 장로나 목사와 같이 실제 사역을 통해 섬겼던지, 특정한 제자직의 역할을 감당했든지, 혹은 교회나 세상을 위해 다른 형태로 섬겼든지--의 섬김과 은사들에 감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온 사역의 종결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정 예식은 주일 예배의 정황 속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이나 파송의 행위로, 또는 다른 예배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예배에는 사역을 종결하는 자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의미있는 다른 영예나 업적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예배 가운데 축하를 받을 수 있다.

W-4.0504: 책벌과 복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교회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구속과 화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표현으로서 훈육을 행사한다. 책벌과 복권의 형식들은 규례서 권징조례에 나와있다 (D-12.01, D-12.02). 이러한 경우들을 위해서는 깊은 기도와 목회적 관심이 반영되어야 하고, 해당 공동체나 교회 공의회 내의 예배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W-4.06: 결혼 언약

W-4.0601: 크리스천 결혼

세례 시에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 이 헌법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논쟁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모범을 개정하는 프로젝트와 별개로 별도의 심의를 거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새로운 정치 형태의 안수에 관한 항목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W-4.0602: 결혼 준비

W-4.0603: 예식을 위한 설정

W-4.0604: 예배 순서

W-4.0605: 시민 결혼 인정

W-4.07: 죽음과 부활

W-4.0701: 부활 증거

세례 시에,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눈물과 기쁨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소망을 확증한다. 우리는 홀로 비통해 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능력과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W-4.0702: 죽음 준비

당회는 죽음의 시기를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러한 준비에는 예배를 위한 계획들과 더불어 매장, 화장, 혹은 의학적 목적의 장기 기증에 관한 결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단순하면서도 위엄이 들어있어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을 전달해야 한다. 장례식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들을 세우는 책임은 당회가 맡는다.

W-4.0703: 예식을 위한 설정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은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과 소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평상시의 예배 장소에서 가장 잘 거행된다. 이 예식을 공식 예배 장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때, 가정이나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장지와 같은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어느 날이나 거행될 수 있으며, 당회의 승인이 있으면 주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몸을 매장하기 전이나 혹은 후에 거행될 수 있다. 예식은 이 예식이 진행되는 교회 목사의 지시에 따라 거행된다. 목사의 재량에 따라 이 예식의 진행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W-4.0704: 예배 순서

예식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부활과 산 소망을 증거한다. 예배자들은 부활과 영생과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찬송가와 시편과 영적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 치료와 화해를 위한 기회로서 고백과 용서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선포한다. 믿음의 확증이 따라올 수 있다. 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복음의 약속과, 죽으신 분의 생애와 간증과, 성령님의 위로와,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슬퍼하는 자들과, 유족들을 돌보는 자들과, 상실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한다. 이러한 상실의 시기에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요청한다. 당회의 승인이 있으면 성만찬을 거행할 수도 있다. 예식은 고인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김으로, 그리고 축도로서 조객들을 보내면서 종결된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은 관(예배 장소에 있다면) 뚜껑을 닫아 놓는다. 관은 세례 시에 그리스도로 옷입은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관보로 덮어 놓을 수 있다. 유월절 촛불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관례라면, 그것을 관 근처에 놓을 수 있다. 음악은 관심을 하나님께 이끌고, 교회의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꽃과 다른 장식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니는 고결함과 단순함을 반영해야 한다. 이 예식은 믿음의 공동체와 문화적 정황에 보편적인 다른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행위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형제 의례나, 공민 의례 혹은 군장 의례는 별도로 거행되어야 한다.

W-4.0705: 매장

매장은 간소하고 정중하고 간결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장지나 화장지에 모인다. 예식에는 성경 봉독과, 기도와, 화관 기도문과 축도가 포함된다. 이 예식은 죽음의 실재를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고인을 받으신다는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며, 우리가 지니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한다.

제 5 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W-5.01: 예배와 개인의 삶

W-5.0101: 개인적 삶

우리는 공공 예배와 봉사를 통해, 그리고 개인의 예배 행위와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개인의 삶과 공공 예배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리스천 예배에서 흘러나오며, 우리는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삶의 현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매일의 기도 훈련과, 다른 믿음의 행위들, 가정 예배, 그리고 크리스천의 소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가운데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님에 의해 능력이 부어진다.

W-5.0102: 매일의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다.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방법이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띸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대화; 세심한 기대 속에서의 침묵; 성경 묵상; 예식서나 묵상집이나 시각 예술품의 사용; 노래나 춤이나 노동이나 신체 운동. 기도는 또한 공공 중언 및 항거, 궁휼을 베푸는 행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절제된 섬김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직면하는 도전들은 매일의 기도 훈련을 요구한다. 매일의 기도는 임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례로부터 나오는 영감 및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위해 성령님의 은사들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매일의 기도는 평생 지속해야 할 훈련이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훈련이다.

매일의 기도를 위한 체계화된 예배가 교회 공의회들 안에서, 회중 가운데, 소그룹 모임에서,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예배는 끊임없는 주님의 기도를 온 세상의 교회에 연결해주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예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시편을 노래하거나 시편으로 기도하기; 성경 봉독; 감사와 중보 기도; 주기도문으로 종결. 매일의 기도를 위한 예배는 하루의 정해진 시간 (아침, 정오, 저녁, 잠자기 전과 같이)에 행해질 수 있다. 혹은 일상적 생활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필요들에 따라 다른 유형들을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에는 당회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예배의 진행은 어떤 정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W-5.0103: 제자직의 다른 관행들

우리는 제자직의 다른 관행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하나님만을 위한 안식일을 지킴 (keeping sabbath), 성경공부, 묵상과 행동, 금식과 잔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 이러한 모든 관행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와 활동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교회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혹은 일요일)에 공적 예배를 위해 모임으로서 이 명령을 준수해 왔다. 주 중 첫 날인 이 날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형성해 준다. 따라서 주일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이며, 섬김과 중언과 궁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쉼과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다.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 중 안식일 (sabbath)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위한 의미와 방향과 위로와 도전을 발견한다. 성경과 관련된 규칙적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말씀 읽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석 연구, 중요 구절 암송,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우리는 성경 속의 다양한 책들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해야 한다.

금식과 잔치는 슬픔과 축하를 표현하는 고대적 방식이었다. 교회력의 축일과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의 사건들에 중점을 두는 금식과 잔치의 리듬들을 제공해 준다. 세계와 나라와 공동체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한 감사와 슬픔과 회개 혹은 항거를 위한 행위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을 다하는 훈련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반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고, 판대하고, 환대를 베풀며, 궁휼히 여기고, 피조물을 돌보며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을 보이는

기초적인 관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과, 영적 은사들과,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W-5.0104: 가정 예배

우리는 개인적 관계들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예배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한 기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하나님만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성경 읽기, 연구, 혹은 암송; 식사 전 기도; 찬송, 시편, 영적인 노래 부르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표현들. 현대 생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야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가정 예배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정해진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목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대강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과 같은 교회력의 절기들은 가정 예배를 위해 더 진전된 형식과 의미를 제공해 준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생일, 세례 받은 날, 그리고 기타 의미있는 기념일들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되며, 또한 자연의 주기, 시민 의식 (civic observance),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추해 보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나 후견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예배하게 된다. 자녀들은 노래와 기도를 함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경청하고 말함으로서, 교리문답을 배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눔으로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할 수 있다. 부모들이나 후견인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을 가르쳐야 한다.

W-5.0105: 그리스도인의 소명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세례 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일할 때와 놀 때, 우리의 생각과 행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관계 및 공적 관계들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는다. 그러한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개혁 전통에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과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일과 증언은 분리될 수 없다.

W-5.02: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사역

W-5.0201: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사역

하나님은 상호적 사랑과 섬김을 위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교회의 사역과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다. 교회의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 나오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축하와 염려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교회의 사역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 및 목회적 돌봄, 친교와 기도를 위한 특별 모임들, 그리고 교회 공의회들의 활동들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쓴다. 교회 사역들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양육되며,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W-5.0202: 기독교 교육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며, 인생의 모든 계절들과 전환기들을 통과하는 동안 서로를 인도해주고 양육하게 하신다. 특히,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크리스천의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교회의 기본적인 표준과 자료는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해주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주일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과 행위들은 공적 예배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성장 과정을 뛰어 넘어 연구와 묵상을 위해 특별히 풍성한 자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공적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육 활동들을 계획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교육 사역은 교회가 성도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세례의 약속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회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감독에 대해, 장로들과 집사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제자직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통해,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기도의 은사를 통해,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양육에 기여한다. 훈련 받은 기독교 교육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성도들의 양육과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에 기여할 수 있다. 당회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은사가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당회는 또한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G-2.02, 2.03, 2.05, 3.02, 2.11).

교회 학교 모임들은 노래와 기도와 말씀 듣기를 위한 기회들과 더불어, 예배를 위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모임들은 또한 자기 봉헌과 예배를 위한 기회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의 예배는 온 성도들과 더불어 참석하는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른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사역을 위한 훈련 및 평생 교육; 특별한 주제들에 대한 워샵; 음악 프로그램 및 리허설; 선교 및 프로그램 해석; 위원회, 이사회, 공의회 모임; 수련회, 캠프, 집회.

W-5.0203: 목회적 돌봄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스트레스와 힘든 시기에 지원해 주고, 권고와 용서와 화해를 제공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지속하게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의지하면서 성도들이 위험과 죽음, 질병과 상실, 위기와 축하, 싸움과 죄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힘쓴다. 특별히,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인쳐주는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으로부터 흘러나오며, 또한 그것에 의해 조성된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회적 돌봄을 위한 토대이며 정황이다.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배 자료들을 사용한다. 즉, 말씀의 은혜와 도전, 성례전의 은총과 성례전을 통한 초청,

기독 시에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신앙 공동체의 교제와 위로를 함께 나눈다. 그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취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이웃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나눈다.

모든 성도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고, 약한 자를 지원해 주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다. 장로들, 집사들, 목사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할 특정한 책임을 맡고 있다. 특별한 은사들과 적당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 목회 상담이나 채플린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상담과 돌봄을 받기 위해 기타 자격 및 인증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되어야 한다. (G-2.02, G-2.03, G-2.05)

전인적 건강 (wholeness)과 치유를 위한 예배가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규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거나 치유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강건함을 위한 예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의 선포가 포함될 수 있다. 기도는 애수 및 기쁨 부음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조심스럽게 소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치유는 인간의 기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주의 만찬이 말씀을 통해 선포된 강건함의 약속을 인치는 적절한 방법이다. 강건함을 위한 예배는 당회의 허락을 받고 목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장로와 집사와 기도의 은사를 지닌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예배는 정기적으로, 즉 특별 행사로 혹은 주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용납 및 화해의 예배에서는 죄와 고통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한 예배는 깨어진 관계들과 죄로 가득 찬 사회 구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예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평화 및 화해의 적절한 표시들과 더불어 고백과 용서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도와 감사의 표현과 현신을 다짐하는 순서들이 포함될 수 있다.

W-5.0204: 기타 모임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타 다른 시간과 장소에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기도록 부르신다. 주중 어느 시간에라도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언약 그룹 및 기타 다른 모임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다음과 같은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양육을 위한 기회;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개인적인 이야기들, 축하할 일들 및 염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공동 과제, 식사, 교제, 레크레이션을 위한 기회; 증거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기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배움과 예배와 섬김과 레크레이션을 위해 수련회 장소, 캠프장, 그리고 집회 장소에서 모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하는 예배는 해당 공의회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성경과 신앙 고백서의 원칙들과 예배 모범에 의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행사는 성격에 따라, 예배 순서들은 매일 기도를 위한 예배, 주일 예배, 또는 이 예배 모범에 설명된 다른 예배 순서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은 그 행사를 감독하는 공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그룹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증언한다. 그러한 예배들은 교단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한 모임들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 목사들은 그들의 참여가 성례전에 대한 개혁 교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 있다 (G-5.01).

다른 사람들, 특별히 타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언한다. 그러한 모임들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실증해 보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다. 타종교간 행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관행에 대한 자율성과 고결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반면, 자신들의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반영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5.01).

W-5.0205: 교회 공의회

하나님은 공의회, 즉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모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이 공의회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서의 증언과, 이 예배 모범의 원리들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되고 주의 만찬 또한 정기적으로 거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의회의 모든 모임은 진지한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공의회들은 또한 분별과 심의의 과정에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중보와, 간구를 위한 다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G-3.01)

W-5.03: 예배 및 세상을 위한 교회의 선교

W-5.0301: 세상을 위한 교회의 선교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파송한다. 교회의 선교와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다. 교회의 선교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실체와 약속을 어렵잖이 알게 된다. 교회의 선교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예배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면서 복음 선포와, 궁휼 사역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과,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려 한다. 교회의 선교는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조성되며,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도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W-5.0302: 복음 전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라고 초청하는 일;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소개하는 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정기적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재 헌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시에는 세례 받을 준비를 하며, 세례시에 결단했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초청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또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들이 받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일에 함께 하도록 초청하는 일을 위해 준비시켜 준다.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 예배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분의 초대를

장조하는 말씀의 선포이다. 이러한 말씀의 선포는 기도로 둘려 쌓여야 한다. 즉, 말씀 선포하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신앙 공동체의 양육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주일 예배시에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례의 재확인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새로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W-5.0303: 궁흘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어 세상에 궁흘을 베풀라 하신다: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간한 자를 방문하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노숙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일.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행해진 이러한 궁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필요들에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고통을 영속화시키는 시스템들을 직면하여 도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개 교회의 중언과 옹호적 사역을 통해, 개 교회를 넘어 더 큰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궁흘 사역에 참여한다.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해 궁흘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 제정된다. 우리는 억압 구조에 우리가 공모했음을 고백하고,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감수하겠다고 맹세한다.

W-5.0304: 정의와 평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 정의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힘써 일하기; 개인 및 공동 사업을 정직하게 처리하기;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기; 정의와 법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정치적 억압에 대해 증언하기; 개인과 그룹들과 백성들에게 가해진 잘못들을 시정하기.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보내 평화를 추구하게 하신다: 보편적 교회 안에서, 교단 내에서, 지역 교회 수준에서; 나라들과 종교 혹은 민족 그룹들이 서로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에서; 지역 사회들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과 가정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위에 기초하며,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혹은 변호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주일 예배 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받고 실천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선물들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을 받는다. 세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지금도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 적개심이라는 분열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불의한 시스템에 참여한 것을 고백하고, 폭력과 불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드려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헌신한다.

W-5.0305: 피조물을 돌봄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유익과 영광을 보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피조물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땅과 물과 공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두려움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돌보기; 지구의 자원들을 약탈이나 오염이나 파괴하는 것 없이 지혜롭게 사용하기;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방식들로 기술을 사용하기;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하기; 생산과 재생에 관한 책임있는 실천들을 촉진시키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아름다움과 질서와 건강과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기.

주일 예배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서 우리가 피조물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해 감사함으로서; 지구를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음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간신에 대한 약속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피조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들로 살겠다고 다짐함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이의 사용과, 성례전 시에 필요한 요소들과, 예배 공간의 건축 및 기타 다른 자원들을 포함하여, 예배를 위한 자료들을 책임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W-5.04: 예배 및 하나님의 통치

W-5.0401: 하나님의 통치

교회는 예배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현재의 실제이며 미래의 약속--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표식이다. 교회의 활동들이 하나님 나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활동들은 단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따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그 통치가 곧 충만함과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려 한다. (F-1.01)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빌 2:10-11).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 7:12).